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4주일
제33권 10호(다해) 2013.2.3

[묵상]



아기 예수님의 성전 봉헌 <렘브란트 1629, 유채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을 좋게 말하며
은총의 말씀에 감탄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버랑 끝으로 내몰게 만든 말이다.
감탄에서 고발로.....
은총의 말씀에는 감탄을,
그 말씀이 나오는 입에는 고발을.
요셉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다.
차라리 요셉을 알지 못했다면
그의 아들에게 감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었을까?
안다는 것이 나의 깨달음을,
나의 믿음을 가로막아버렸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보려면
그분은 모습을 감추신다.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속에
간헐 제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삶은 성장과 변화임을 망각하면
자신만의 예수님을 창조하고 숭배하고
결국 죽이게 된다.
2000년 전의 나자렛 사람들처럼.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이차영
특전미사	(생)김옥 안토니오 & 김행선 올리아나, 이교완 베드로 & 박해숙 스텔라, 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박민환 미카엘 & 정연정 & 황선홍 그레고리오
주 일	(연)배덕환 요셉, 김두철 아브라함, 김인영 베드로, 지용애, 이정용 야고보, 이원호 요한, 김풍길 바오로,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낮 미사	(생)이윤조 클라라, 김명재 아가다, 조정욱 안드레아, 송영미 베로니카, 최조앤 가브리엘라, 박예지 에슬리, 오상현 스티븐 & 오세호 레이먼드, 민석준 토마스 & 미애 가정 & 민영준 마르코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야(Jeremiah) 1,4-5.17-19

화답송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 리 이 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
○이 몸 보호할 반석이 되시고, 저를 구할
신성이 되소서. 당신은 저희 바위, 저의 보루시옵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옵니다. ◎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2,31-1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 음 루카(Luke) 4,21-30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주찬양합니다	181	182
봉헌	We Fall Down	265	269
성체	Heart of Worship	284	304
파견	기뻐하며 왕께	200	19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 말씀과 성소들

다) 하느님 말씀과 봉헌 생활

그러므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봉헌 생활 공동체들에서
신앙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는 확고한 양성이 반드시 마련되기를
권고합니다. 특별한 카리스마에 의해 꾸준히 당신 아드님
의 말씀과 행적들을 묵상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와(루카
2,19.51 참조)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깊게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베타니아의 마리아를(루카 10,38 참조) 본받는 데에
하루의 많은 시간을 바치는 관상 생활 형태에 대하여 세계 주
교 대의원 회의가 표했던 주의와 감사를 저도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특히 세상과 분리됨으로써 세상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더
욱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봉쇄 수도자들(monachi et mo-
niales)을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아무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앞세우지 않기로” 약속하는 이
들의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너무나 자
주 외적인 활동에 빠져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
을 겪고 있습니다. 관상 수도자들은 그들의 기도 생활, 하느님
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생활을 통하여 사람이 빵으로만 살
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마태 4,4 참조).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이러한 생활 형태가 “오늘의 세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필요한 단 하나의 것을 가리켜 보여 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
갈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하느님과 그
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라) 하느님 말씀과 평신도

84).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자주 평신도들에게 주의를 기울
였으며, 일터와 학교와 가정과 교육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
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관대하게 투신해 온 것에 대하
여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례에서 나오는 이러한 책
임은,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의 근거’(1베드 3,15 참조)를 설명
할 수 있는 점점 더 의식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통하여 펼쳐
져야 합니다. 마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
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이다.”(마태 13,38)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선택된 이유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선택을 받아 특별한 보살핌과 은총을 받습니다. 하느님이 여러 민족들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만 뽑아서 총애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멸망시키기 위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 12,3 참조)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상응한 응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응답이란 하느님만을 섬기면서 그분 뜻대로 서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다른 백성들을 참된 행복의 근원인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하느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불의와 폭력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 사람들도 완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면서도,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집안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그분의 비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적을 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전에는 못 믿겠다’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쓴소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쳐 놓고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건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한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의 불신과 완고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먼저 구

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당당하게 전해야 하는 예언자의 소명(제1독서)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나자렛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 때문에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아들, 딸로 선택을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과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각별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이란 ‘믿음과 희망과 사랑’(제2독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의심과 회의, 낙담과 절망, 무관심과 이기심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느님을 굳건히 믿으면서 불굴의 희망을 간직하고 묵묵히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머무름...

인간은 자기 양심의 깊은 곳에서
언제나 생명의 불기침성을 사가합니다.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며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40항 -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정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레 테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송현식 바오로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정명모 마리아
체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정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박희자 마리아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체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2월13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니다.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 미사: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에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가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2월10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2월15일부터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되며, 미사후 '십자가의 길' 기도가 구역순으로 진행됩니다.

- 재의 수요일후 금요일(2월15일): 토런스 동구역
- 사순 제1주일 금요일(2월22일): 토런스 서구역
- 사순제2주일 금요일(3월1일): 사순피정(십자가의길없음)
- 사순 제3주일 금요일(3월8일):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15일):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22일): 하버/카슨 구역
- 성 금요일(3월29일): P.V. 구역(오후 3시)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재의 수요일부터 준비됩니다.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 '새해맞이 나의 신앙다짐' 5행시 공모 마감...40여점 출품

- 전시: 2월3일(주일)~16일(토) 강당
- 시상을 위한 추천: 많은 교우들이 직접 보시고 1개작품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시상 2월17일)
- 상품: 1등 전기밥솥, 2등 고급핸드백, 3등 커피세트
* 문의: 안재만 다니엘 홍보분과차장 ☎(310)972-0239

◆ 북미주 한인사목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2차헌금

● 오늘주일(특전미사 포함) 미사헌금중에-

◆ 제사년 '설' 합동위령미사

- 일시: 2월10일(주일) 오전 7시30분, 오전 11시
- 미사후 세배와 떡만두국 나누기
- 미사예물 봉헌: 사무실

◆ 본당 율트레아에서 친교점심 무료 제공/밀반찬 판매

- 일시: 2월2일 특전미사~ 3일 주일미사
- 친교점심: 시원한 배추국밥
- 밀반찬: 빈대떡, 족발, 멸치볶음, 무말랭이 오징어채무침, 장아찌, 상항버섯, 차가버섯 등
- 문의: 이명순 크리스티나 율트레아간사 ☎(310)749-0276

◆ 해설자 / 독서자 교육

- 일시: 2월10일(주일) 낮미사후 성전
- 지도: 오마우라 수녀님

◆ 빈첸시오 월 정기모임 변경

- 일시: 매월 둘째주일 오전 9시30분
- 문의: 박홍룡 요셉회장 ☎(310)283-5879

◆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

- 일시: 2월14일(목)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중에

◆ 백삼위 정기 골프 토너먼트

- 일시: 2월9일(토), 오전 9시 *장소: 로스 버디스 골프코스
- 문의: 유석영 레오 골프회장 ☎(310)997-5388

◆ 본당 주방용품 반납 및 도네이션 환영합니다

집에 음식을 담아갔던 본당 주방용품이 있으면 신속한 반납을 바랍니다. 혹시 잊고 계시지나 않은지요? ☺

◆ 故 배덕환 요셉 저희 부친의 연도 등 장례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주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배기엽 클레멘스/ 배기현 신부 외 유족일동 드림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3일(주일): 율트레아 점심 및 밀반찬 판매
주일학교(11학년 김밥)
- 2월10일(주일): 성모회(전신자들과 떡만두국 나누기)
주일학교(10학년 핫도그 & 나초)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김광자	김옥보	김우용	김정웅	고천용	김광자	김옥보	김우용	김정웅	노찬술	박현주
김주량	노찬술	박현주	서성용	송영미	신현화	양영관	서성용	송영미	신현화	양영관	오세원	오수인
오세원	오수인	오신재	유희동	윤희동	이경태	이근태	윤희동	이경태	이근태	이병우	이우성	이윤무
이병우	이우성	이윤무	이일량	이재승	이형삼	이효세	이효세	장정진	조준제	최영신	최이원	최재은
장정진	정연영	조준제	최영신	최이원	최재은	최지영	최진수	최태훈	하정화	한장환	한혁수	최지영
최진수	최태훈	하정화	한금순	한장환	한혁수							
합계: \$4,260						합계: \$3,250						
주일미사헌금: \$2,991						감사헌금: 박이래네 김순희/김교복 이경태 오영섭						

공지사항

◆ 2주간의 기도체험 피정

- 일정 : 2월17일(주일)~3월2일(토)
- 대상 : 기도안에서 하느님 체험과 이나시오영성에 따른 기도체험을 원하는 분
- 피정지도 : 이상훈 요한 신부(LA대교구 St.제임스성당)
- 첫모임(장소) : 17일(주일) 오후 1시15분 본당 강당
- 신청서 : 사무실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기간 : 2월1일(금)~3월24일(주일)까지
- 제목 : 마태오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3월31일)

◆ 중등부(주일학교) 사순피정

- 일시 : 3월8일(금)~8일(토) 장소 백삼위성당
- 대상 : 6학년~8학년 참가비 없음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15일(금)~17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피정의집(테메쿨라)
- 대상 : 9학년~12학년 참가비 \$60(3/1일 이후는 \$80)
- 준비물 : 성경, 묵주, 미사헌금,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신청마감 : 2월28일까지 선착순 40명(인원제한)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 SAT II한국어 시험 준비반 모집...현재 수업중

- 대상 : 현재 8학년~11학년
- 신청 : 한국학교 교사실(2층) 상담 및 반 배정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중 :
* 등록금 : 첫째아이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교장 ☎(310)464-7490

소공동체 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강순복 요세피나 213-675-0498 2/16(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2/9(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2/8(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토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대우 비오 378-8763 2/16(토)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김세중 벤자민 424-241-5988 2/16(토) 오후 6시 성당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우영희 엘리사벳 691-6087 2/8(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오창애 안나 974-2857 2/15(금) 십자가의길 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634-6923 2/14(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박정희 마리아 800-3709 2/9(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조소영 수산나 804-7645 2/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2/8(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541-4760 2/8(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2/8(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금명영 세실리아 617-3568 2/12(화) 오전 10시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남가주 소식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4학기 강의 안내

- 주제 :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 2'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판구)
- 일시 : 2013년 2월 8,9,10일(금토일 저녁시간)
- 장소 : LA 성아그네스 성당(2625 S. Vermont Ave.)
- 대상 : 신자 및 일반인 모두 환영 * 수강료 : \$50
- 교재 : 비참과 자비의 만남(송봉모 신부 저)
- 등록문의 : 김크리스티나 ☎(323)896-7525

◆ 제13기 커피교육

- 일시 : 2월11일(월), 14일(목)
- 지도 :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수강료 : \$200
- 문의 : LA아그네서 성당 사무실 ☎(323)731-4433

‘하느님은 계시겠지...’ 막연하게 믿는 신자입니다.

‘하느님은 계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믿는 신자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을 삶 안에서 어떻게 느껴야 하나요?

☞ “한처음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요한 1,1-3)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글을 쓸 수 있는 연필로 맥주병 뚜껑을 뚫다면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연필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병을 따는 것은 고사하고 연필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연필은 글을 쓰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병따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필에게 의식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신이 멋진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때일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할까요? 단 한 번 주어진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연필에게는 연필의 존재 이유가 있듯이 우리 삶에도 소중한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창조주 하느님보다 내 존재 이유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격’으로 초대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자신을 인식하고 자제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초대하는 은총을 받았고 사랑과 신앙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달은,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우르를 떠나 알 수 없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며 쳐다보았던 그 달입니다. 찬란한 햇살을 내려보내는 태양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태양의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태양이며, 밤하늘의 수많은 별은 이나시오 성인이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 별들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인간을 참 행복으로 부르시며, 마지막에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시어(히브 1,1-2 참조)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유산이 있는것도 모르는 채 성공, 취직, 돈, 명예, 재물 등을 삶의 가장 높은 가치에 올려놓고, 혼란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참 평화와 인생의 목적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

리를 만드셨기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도 그분만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시편 139,1-13 참조) 온갖 피조물의 관리인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삶과 순간적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변화하는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심지어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부터 몸서리치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당신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이사 41,13)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 가톨릭교회교리서 해설

☞ 길을 찾는 그대에게

아들이 어릴 때는 주일학교에도 다니고 복사까지 하였는데, 대학간 이후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는 관면혼배까지 다 시켰는데, 며느리도 신자가 아니다 보니 손자손녀들은 유아세례도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다 제 잘못인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신앙문제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자녀의 냉담이 모두 부모의 탓만은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육이 너무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만 치우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주말마다 주일학교에 참여하였기에 그때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활동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당이라는 공간에서 토요일과 주일을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만,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신앙활동으로 여기고, 열심히 그 활동에 매진하지만, 그 활동을 멈추게 되면 바로 신앙생활 전부가 사라지곤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자모회를 하다가, 사목회 간부를 맡다가, 그 말은 직책에서 벗어나면 신앙생활에서도 벗어나 버립니다.

자녀에게 다시 성당 가라고 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생활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기쁨과 위로, 삶의 희망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먼저 스스로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신앙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면 바로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교구 임호성당 보좌